

전북개발공사, 혁신으로 경영계획 강화

4대 추진전략·세부 이행과제 담은 혁신계획 수립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는 4대 정부혁신 과제(구조개혁,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이행과 더불어 개발공사의 특화된 경영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과 세부 이행과제를 담은 '2024년 전북개발공사 혁신계획'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전북개발공사는 작년 새롭게 수립한 중장기 경영계획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혁신과제를 발

굴하였고, 과제이행을 통해 공사의 혁신을 이뤄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을 만드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공사의 혁신방안은 "소통과 협력, 안전과 환경, 기술과 미래, 신뢰와 배려"라는 4개의 추진전략과 세부 25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 과제로는 ESG경영 지원 확대, 인구소멸 대응 반값 임대주택 공급,



전북개발공사 전경

건설현장 자원 재활용,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등 최근 이슈되고 있는 지역인구 소멸 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는 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공사 ESG경영팀 관계자는 "정부의 혁신방향과 부합하는 공사만의 혁신 경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선진적인 조직문화를 이끌어 가는 지방공기업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 전국 도시개발공사의 모범이 되는 지방공기업이 되겠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전북개발공사는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보통등급인 '나'등급을 획득하였으나, 혁신과제를 비롯한 다양한 경영 실적을 바탕으로 2025년에는 외부 경영평가 우수등급 이상을 획득할 계획이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정읍시 소재 JB금융그룹 아우름 캠퍼스에서 2024 다채로운 다문화캠프 '다다캠프'를 성황리에 마쳤다.

전북은행, '다다캠프' 성료

3박 4일간 금융경제교육·진로탐색강연 등 큰 호응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정읍시 소재 JB금융그룹 아우름 캠퍼스에서 2024 다채로운 다문화캠프 '다다캠프'를 성황리에 마쳤다.

JB금융그룹 다문화 분야 핵심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다다캠프'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다문화가정 아동 70명과 직원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JB금융그룹 씨앗 봉사단' 및 관계자 20여 명 등 총 90여 명이 참여했다.

전북은행은 미래 사회 핵심 인재로서 화합과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다채로운 진로 탐색 및 체험의 기회와 다양한 액티비티 활동을 제공하고, 직원들의 재능기부로 시행한 금융경제교육을 통해 금융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또한 방송인 '샘 해밍턴'과의 토크콘서트에서는 진솔한 대화를 통해 아동들이 지닌 다양한 강점이 각자 미래의 꿈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져 큰 호응을 얻었다.

/이만호 기자



전은, 위메프·티몬 지연 피해 중소기업·개인사업자 금융지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최근 위메프·티몬의 대금 정산 지연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이번 금융지원은 일시적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피해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금융지원을 통해 피해 업체의 금융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위메프와 티몬의 거래 대금 정산지연 피해 사업자이며, 8월 7일 이전 취급한 기업 대출 중 올해 5~7월에 티몬 위메프를 통한 결제 내역이 확인된 경우다.

이번 지원을 통해 최대 1년간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진행하며 시행 기간은 8월 7일부터 내년 8월 6일까지이다.

단 가계대출, 이자 선취 대출, 폐업, 자본잠식업체, 부실여신 등은 제외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융지원이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극복을 위해 지역 거점 은행으로서 전북은행이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호치민 식품 박람회서 전북자치도 농수산물 홍보관 운영

바이오진흥원, 8일부터 3일간 4개 기업 참가... 약 46만불 수출상담 성과 거둬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베트남 및 동남아 시장개척을 위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베트남 호치민 식품 박람회'에 참가해 전북 농수산물 공동관을 운영한 결과 약 10만불의 현장계약을 포함해 총 46만불의 수출상담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도내 농수산물 업체는 총 4개 기업으로 면역강화식품, 유산균, 커피민기능성소재, 유자차 등의 제품을 홍보·전시하였으며 베트남 및 동남아 여러 국가의 바이어들과 열린 상담을 진행했다.

최근 베트남은 낮은 수준의 현지 의료서비스로 인해 건강보조제 등 건강식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약국, 건강식품전문점과 같은 유통 채널이 발달해있다. 또한 홍삼, 영지버섯, 동충하초 등은 대표적으로 인기 많은 건



강보조식품이며, 특히 한국 홍삼에 대해 현지 인지도 및 선호도가 높으며 최근에는 한국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어 추가 납품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참가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바이어들과 열린 상담을 진행했으며, 긍정적인 시장 상황을 반영하듯 익산에서 유자차를 생산하는 A기업의 경우 베트남 현지 바이어인 S사와 상담을 진행하

고 밝혔다. 이번 호치민 박람회 참가를 통해서 베트남 시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동남아의 다양한 바이어를 만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B기업 관계자는 "베트남 시장 상황이 한국 및 전북제품에 긍정적인 만큼 전북도와 진흥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지원을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우수한 건강식품이 베트남 시장과 동남아 전역에 진출하기 위해 박람회가 끝난 이후에도 관련 바이어 초청 상담 지원 등을 통해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북 지역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에 동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탄진원)은 지난 8일 전북 테크비즈니스센터 '전북 빅데이터 기술 교류 공동연구회' 신규 참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북 빅데이터 기술 교류 공동연구회 참여 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내 빅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관련 공동연구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로써 전북 빅데이터 기술 교류 공동연구회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북 IT산업협회, 군산대학교 SW중심사업



단,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4개 기관이 참여함에 따라 총 31개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업무협약식 이후 열린 제54차 월례회에서 "AI 인프라 및 생성형 AI 구축 사례"를 주제

로 전북 빅데이터 공동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국민연금공단, 농촌진흥청 등 전북 빅데이터 기술교류 공동연구회 참여 기관 및 산업체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하여, 전북 지역 디지털 산업 현황을 검토하고 생성형 AI 활용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경영진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전북 빅데이터 기술교류 공동연구회와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농진청, 무굴착 땅속배수 기술 시범사업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굴착 땅속배수 기술'이 기후변화에 대응해 논농 생산성을 유지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무굴착 땅속배수 기술은 땅을 파고 파지 않고 배수관과 소수재를 땅속에 동시에 묻는 것으로, 논에서 발작물을 재배할 때 배수(물 빠짐)불량으로 인한 침수, 습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소수재는 유공관 내로 흙모래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물 빠짐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 주변에 뿌리는 모래, 자갈, 왕겨 등의 재료이다.

이 기술을 시공하면, 장마철 집중호우와 폭우 등으로 강우량이 증가해도 논 토양의 배수가 원활해 논농 생산성 저하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식량과학원 생산기술개발과가 지난 5년간의 현장 실증시험에서 무굴착 땅속배수 기술을 적용한 결과, 인근 일반 논과 비교해 콩 수확량이 20~50%가량 많은 것을 확인했다. 특히



지난해 잦은 비로 습해가 컸던 일부 지역의 시험 재배지 중에는 수확량이 50% 넘게 나온 곳도 있었다.

무굴착 땅속배수 기술은 한번 설치하면 10년 이상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경제성도 우수하다. 또한, 땅을 파거나 뒤집지 않아 토양의 비옥도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시공 비용은 헥타르(ha)당 약 1,232만 원으로 땅을 파고 관을 묻는 굴착식 땅속배수 기술(3,720만 원)의 약 1/3 수준이다. 시공비는 콩 수확량 증가 정도에 따라 2~4년 안에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욱기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